

악취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익산시·영명농장, 축사시설 철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부권 악취문제 상당 부분 해소 기대

익산시와 영명농장이 축사시설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현동, 송학동 일대 악취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권영구 영명농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폐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익산시와 영명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사시설 철거로 서부권 주요 악취 오염원을 해소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 서부권 지역은 수년째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악취해소를 위해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계획의 변경과 정책의 변화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악취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다 축사시설 철거를 추진하기로 해 서부권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시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관리방안 연구영역을 실시해 권역별 악취 발생 빈도 및 악취특성을 파악한 결과 서부권(모현동, 송학동)은 익산

시 전체 악취발생 빈도의 30%를 점유하고 이중 98%가 분뇨배설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지역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전면적인 시설개선이나 부지이전 등의 대책이 이루어질 경우 익산시 악취민원이 30% 정도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부권 악취의 원인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대규모 돈사시설 철거를 위해 정현을 시장과 영명농장 사장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축산업 폐업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게 됐다.

영명농장은 내년 1월에 사육중인 돼

지 3,500두 출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축사 철거와 사업장 부지 11,200㎡를 정리할 계획으로 축사폐업이 완료되면 서부권의 악취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부권 지역의 주요 악취 요인인 분뇨배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배출업소의 시설개선, 악취지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민들의 악취 인식전환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왕원기자

내년도 군산시간여행축제 개최 일정 확정

축제 준비 위한 본격 채비 시작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시간여행축제 추진 일정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내년 개최일정은 도내 타 시군 축제 일정과의 중복을 피하고, 최근 5년간의 날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됐다.

시에서는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간여행축제 홍보를 비롯한 기본계획과 새로운 구상 등 축제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다.

특히 SNS를 통한 연중 지속 홍보 등의 새로운 마케팅과 올해 군산시민의 특화된 홍보방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올드파 로드마케팅', '자랑봉사 플



래시품 홍보' 등의 기존 마케팅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최영기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장은 "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의 근대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콘텐트가 확실하고 차별화된 축제"라며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축제 공간의 창출과 콘텐트 발굴을 통해 더욱 매력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특교세 58억 확보... 현안 추진 '탄력'

익산일반산업단지, 올 한해 643억원 투자 · 640여명 고용창출

익산시의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올해도 일관 결실을 맺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34일반산업단지 14개사 16만600㎡, 638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12개사와 8만600㎡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643억원의 투자와 640여명의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성과를 거둔 것은 익산시 공무원들의 발로 뛰는 기업유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익산시는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기준을 대폭 낮추고 지급시기도 공장등록 후 지급했던 것을 분양계약과 동시에 분양대금의 0.3%인 최대 5천만(국내기준)까지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에 투자하고 고용을 증대한 미원상사 등 4개 업체에 투자보조금으로 40여억원을 지급하여 기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 하였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동기부여를 위해 분양변역 16,550㎡이상 기업 유치시 포상금 지급과 함께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현재까지 익산34일반산업단지 전체 평균 분양률은 53%정도로서 익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유치 참여를 독려하고 수도권 기업 및 서울투자유치 사무소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투자의 향 기업을 발굴하여 연말까지 내실 있는 기업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계획이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올해 58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수준으로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미뤄왔던 지역현안과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세계유산등재지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6억), 구도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조성(6억), 국도23호 진입도로 확장(11억), 황등면 하동마을~동연 지하차도간 도로확포장(4억) 등 사업에 27억이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용과 어린이용 CCTV설치에 10억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이외에도 응포 해지천(5억), 유천마을(5억)과 용강마을(6억) 등 정비에 20여억 원 확보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2017년 사상 최대의 보통교부세 확보로 골목예산 편성을 통해 보안등, 농로포장 및 농배수료정비, CCTV설치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결한 데 이어, 두둑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 재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불편해소와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외에도 전라북도로부터 2018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하여 도로정비를 위한 특별교부20억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두루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의 열악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시기에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내년 1월 1일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사)군산발전포럼 (의장 최연성 군산대교수)은 군산의 우리마을 선양동 해돋이 공원 일원에서 군산시민과 함께 신년맞이를 통해 더 높은 더 밝은 새 희망을 기원하는 '2018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를 무술년인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연다.

선양동(先陽洞)은 먼저 해를 맞이하는 동네 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 해발 50m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해돋이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곳은 또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주인공 초봉이가 살던 곳이자,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곳으로 문화콘

텐트가 풍성한 곳 이어서 월명동 근대문화를 관람하는 관광객과 같이 신년여행의 해돋이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연성 의장은 "선양동 해돋이 공원 일원은 최근 겨울철 가장 걷기 좋은 길로 뽑힌 군산 탁류길 코스로 군산의 동서남북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명동 경관 위주의 근대 문화 관광사업의 한계를 딛고 당시 조선인의 삶과 형일무쌍을 조망할 수 있는 콘텐트가 풍부해 이를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할 경우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마을의 이야기를 듣다

군산 성내마을 전통생태 체험장소로 거듭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지난 3월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시범마을'로 선정된 임피면 성내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농촌마을 체험관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촌 전통생태자원'이란 오랜 세월 해당 지역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하면서 수세대에 걸쳐 쌓아 온 지식과 연관된 생태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적된 농촌의 전통과 문화 생태 등 마을이 가진 자원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농촌마을 체험관광의 중요한 콘텐트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마을로 선정된 성내마을의 맞춤형 농촌체험 콘텐트를 개발하기 위해 마을의 전통생태자원인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조선왕조실록과 1920년대 임피면 관련 신문기사,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내마을만의 스토리텔링을 정리하여 체험관광을 위한 4가지 콘텐트를 도출했다.

성내마을 농촌 체험관광의 주요 콘텐트는 ▲마을 주변의 노거수를 주제로 한 나무야 나무야 ▲향교

의 생활예절교육 '향교 배롱나무 아래서' ▲마을의 생태자원과 역사자원이 담긴 '임피성 돌고돌아' ▲조선왕조실록과 나무 나이와의 연대를 추적하여 당시의 역사를 알아보는 '조선왕조실록과 나이에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현청이 자리했던 성내마을에 여전히 자리해 있는 임피향교, 연지, 노성당 등의 문화유산들과 200~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왕버들나무 등 노거수들을 활용한 마을의 농촌 체험교육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옛 것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창호 농기술센터 소장은 "임피면

성내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마을에 대한 기록과 노거수 등 마을 자원이 월등하게 풍성한 마을"이라며 "이러한 자원을 농촌체험으로 엮어내어 도시민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드는 일은 농촌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준비과정을 통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총망라하여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이를 도내 대학도서관 등에 송부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트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 Hub GUNSAN GUNSAN CITY